

Artist's Statement

정재철

‘모순’이란 주제로 작업을 해오던 나는 인간, 사회, 기업, 국가간의 관계에서 모순된 상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사건, 아프가니스탄의 끊임없는 내전, 수십 년간 나라를 통치해온 독재자와 이에 맞서는 반정부 시위 그리고 6.25 전쟁, 이 사건들은 결코 자연재해가 아니다. 원자력의 끔찍함을 너무 잘 알면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할 수밖에 없는, 아무 죄 없는 어린이들의 희생을 보면서 끝나지 않는 내전, 정권을 유지하려는 자와 끌어내려야만 하는 자들, 절대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 할 수 없는 6.25 전쟁, 아프리카의 알비노 사냥 등.. 이 모든 일들이 모순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었으며 사람들은 원인도 모른 채 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가? 모두 인간에 의해 생겨난 일임과 동시에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 혹은 소수에게 고통을 주며, 다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그들에겐 희생이란 단어를 부여한다...

나는 인간은 모순된 인격체라 말하고 싶다!

-MIDDLE GROUND- 대립과 충돌 이후에 필요한 것은 타협이다.

인물을 소재로 작업을 시작했던 나는 모순된 상황 속 인물 혹은 내 주변 인물을 선택하였다.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표정을 나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표현하였지만 현재는 인물의 형태와 표정을 배제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갈등과 폭력으로 인한 불안, 그리고 타협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인간은 성장하는 동안 가정과 사회에서의 교육, 인간관계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한다. 사람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 주변 세계와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간에 접점이 멀어지면서 갈등과 대립이 생겨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회사, 국가와 같은 공동체 속에서 생기는 갈등은 상상보다 크고 해결점을 찾기란 더욱 어렵다. 결국 타협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양보’가 수반 되어야 한다.

그림 그리기 전에 계획은 세우지만 항상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 붓 터치와 면적, 색감과 물성의 조화를 생각하면 항상 변수가 발생하며, 그리고 지우기를 수 없이 반복한다. 작업과정에서 순간의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고, 때론 적지 않은 양보를 하기도 한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작업할 때 가졌던 감정이 드러나는 가장 이상적인 화면 구성에 도달하게 된다.

내 작업은 수 많은 타협의 흔적들이다!